

광주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152억...작년比 87% 증가

발생 건수 255건·검거 인원 341명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40% ↑

대출·기관 사칭...경찰, 주의 당부

#최근 카드 발급 안내 문자를 받은 A씨는 그 후로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라는 이름로부터 잇따라 전화를 받았다. 연이은 통화 끝에 돈을 '안전 계좌'로 보내야 한다는 말을 믿고 A씨는 2억1천여만원을 송금하려던 중 '악성 앱 구

제활동'의 일환으로 출동한 경찰관 덕에 피해에서 벗어났다.

올해 상반기 광주에선 작년보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55건, 피해액은 152억원, 검거 인원은 3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발생 건수 211건, 피해액 81억원, 검거 인원 236명보다 각각 20%, 87%, 44% 늘어난 수치다.

범행 수법은 '저금리 전환' 등의 대출 사기형이 137건, 신용카드사와 금융감독원, 검찰 등 '기관 사칭' 118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액은 기관 사칭형이 124억원으로 대출 사기형 28억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표 발급을 유도하며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피해자 중 1억원 이상 고액은 41명이었는데, 이 중 60대 이상이 28명(남자 6명, 여자 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연령대에 피해가 집중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고 '악성 앱' 같은 정보 기술에 비교적 취약한 특성이 겹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광주경찰은 지난 4월부터 '보이스피싱 수법과 예방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공동주택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금융 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며 피해가 많은 연령층과 직군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 덕에 상반기 동안 보이스피싱 25건(24억여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지난 3월 이후 발생 현황과 피해액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광주경찰의 설명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사례처럼 악성 앱에 감염된 이용자를 초기에 인지하고 현장에 직접 출동해 피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조직화·고도화되면서 악성 앱 설치는 물론이고 숙박업소에 머물게 하는 등 행동을 통제하는 수법도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추락사고 방지’ 제석산 구름다리 철조망 설치

9일 광주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에 남구청 관계자들이 추락 사고 방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철조망은 2개 지점에 각각 이중으로 구축된다. 남구는 다음 달까지 구름다리 주변에 그물망과 방범용 CCTV를 추가로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자살 예방 전화기도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남구 제공〉

‘하늘이 준 선물’ 유기·방임 부모 ‘징역형’

법원, 20대 남편 징역 1년6개월 실행

“양육 이행” 부인 징역 1년·집유 2년

가정 불화를 이유로 가출한 엄마와 게임에 빠져 살며 세 아이를 돌보지 않은 아빠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전수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부부 A(20대)씨와 B(2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1년6개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올해 1~3월 친아들 3명에 대해 부모로서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학대한 혐

의로 기소됐다.

부부의 학대는 A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게임에 몰두하며 생計 불화에서 시작됐다.

B씨는 남편의 행태에 화가 난다며 약 3개월간 가출했는데, 그가 향한 곳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친정이었다. 이 기간 A씨는 세 살짜리 큰아들과 두 살 된 쌍둥이를 사실상 학대나 다름 없을 정도로 방치했다.

자신은 정부가 지원하는 아동 수당으로 배달 음식을 구매해 배를 채우고선 아이들에겐 하루에 한 번 꼴로 이유식이나 분유를 먹였다.

급기야 아이들은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찌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이웃집에서 찾아오기까지 했

지만, A씨는 양육에 나서지 않았다.

다행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구조된 아이들은 현재 보육시설에 맡겨져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장 부장판사는 양육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B씨에게 “아이들을 보러 가기는 했냐”고 물었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형을 정하기 정말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장 부장판사는 “아이들은 하늘이 준 선물이다. 다른 이들은 애를 못 가져 절망하는데 당신들은 셋이나 받았잖냐”며 “이건 인간이 정한 사회 규범에 따라서 내리는 벌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

집회 참여 ‘유죄’ 교사 2심 마무리 수순...내달 결심

공무원법 ‘65조 4항’ 위헌 논란 재점화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비방하는 목적의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은 교사에 대한 2심이 마무리를 향해 가는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이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받은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백 교사는 지난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와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참여해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의미가 담긴 노래를 부르거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선 백씨가 참여한 각 집회의 주최자들이 증인으로 출석, 심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백씨를 교사로서 부른 게 아닌 ‘소리꾼’으로 초정한 것이며 각 집회의 성격이 정치 목적이 아니었다고 피력했다.

증인 신문은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집회는 특정 정당에 주최한 것도 아니었고 지지·반대 목적도 아니었다”며 “정치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확대 해석하는 건 교사들의 표현·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돼야 하고 보장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을 위헌제정하라고”고 촉구했다.

/안재영 기자

해남경찰, ‘폭염 속 실종’ 장애인 무사히 구조

무안경찰 공조 요청에 즉각 대응

신안경찰도 80대 치매노인 찾아

해남경찰이 폭염 속 실종된 장애인을 신속히 구조했다.

9일 해남경찰서에서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36분께 무안경찰서로부터 ‘장애인 아들 A씨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에 따른 공조 요청을 접수했다. 경찰은 즉각 이동 동선을 추적, 해남버스터미널 CCTV를 통해 A씨가 버스에서 하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실에 있던 A씨를 발견해 무안경찰서에 인계했다.

A씨는 실종된 지 하룻만인 8일 오후 12시15분께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A씨는 무안군 청계면 주거지에서 ‘물을 사오겠다’며 외출한 후 귀

가지 않아 보호자가 112에 신고했으며 목포·진도·광주 등지를 경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남경찰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광주 남부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고 광주에서 실종된 여중생을 지역내 PC방에서 찾아가 가족에게 인계한 바 있다.

안행주 해남경찰서장은 “지역을 불문하고 실종 사건 공조 요청이 접수되면 총력 대응해 조기 발견과 안전한 인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안경찰도 지난 8일 오전 9시30분께 신안군에 거주하는 김모(80대·여) 어르신이 집을 나선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드론, 수색견, 소방대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광범위한 수색을 벌였다. CCTV 분석 결과 김 어르신이 인접 마을로 이동한 모습을 확인한 신안경찰은 수색 범위를 좁혀 한 폐가에서 어르신을 발견, 구조했다.

/해남·박필용·신안=양훈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2. 신속하고 확실한 A/S
-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고급 G-07 프리미엄

피닉스 K-07

피닉스 G-01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이프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이프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이프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CMYK